

2022년도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2. 10. 13(목) 16:00
- 회의장소 : 메이플플레이스호텔 컨퍼런스룸 1

2022도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28작품으로, 초연부문 11작품, 재연부문 17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2022년도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품공모는 예년 대비 초연 작품의 수가 줄고, 재연 작품이 증가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내년에는 의욕적인 초연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공모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곡가 본연의 이야기에 집중한 작품들이 많았다. 국악기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하게 서양 음악적 특성을 강요하는 작품의 비중 또한 감소하여, 국악 관현악의 추세가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현악 기법의 수준 또한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실험을 한 작품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곡을 써야하는 어렵고도 의미있는 창작작업이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미래의 국악에 참신함이 깃들어진 열정적인 작품들이다. 한국음악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한 작품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통적인 음악어법과 새로운 음악어법의 결합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작곡가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아창제와 같은 새로운 관현악곡을 공모하는 행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